원시 어로방식 ‘돌살’ 관련 어휘 연구

홍기옥*

<차 례>

1. 현장조사와 제보자
2. 돌살 관련 어휘 분석
  1) 돌살 관련 명칭
  2) 돌살 만들기 관련 어휘
  3) 고기 거두기 관련 어휘
  4) 보수하기 관련 어휘
  5) 고사 지내기 관련 어휘
  6) 관용표현
3. 결론

【국문초록】

본 연구는 조수간만의 차이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남해안, 서해안에서 행해졌던 원시 어로방식인 ‘돌살’에 관련된 어휘를 현장조사를 통해 정리,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돌살’과 관련된 어휘를 목록화하고 관련 자료 기반을 구축하는, 나아가 어촌지역 어로방식과 관련된 어휘장 구축을 위한 기초 작업의 의미를 띤다. 관련 어휘 조사는 현재도 돌살을 이용한 어로가 행해지고 있는 전라남

*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도 해남군 송지면 지역을 중심으로, 돌살을 보유하고 관련 어로를 4대째 하고 있는 제보자를 선정하여 진행하였다.

조사를 통해 지역에서는 '쑤기땀, 쑤기'로 불리는 돌살의 전체·부분·종사자·단위 명칭, 돌살 만들기와 보수하기에 관련된 어휘, 고기 거두기와 관련된 어휘, 고사하기와 관련된 어휘, 돌살과 관련된 관용표현을 수집, 정리하여 돌살 관련 어휘를 체계화하였다. 조사를 통해 '돌살'에 관련된 99개 어휘를 수집하였고, 이 중 59개는 『표준국어대사전』이나 〈한민족언어정보화 방언검색기〉 수록되지 않은 어형으로 돌살 관련 연구에서 발굴되지 않은 어형도 있었다.[1] 또한 현지에서 사용하는 돌살 관련 연어 구조의 어형도 수집, 정리하였다. 이를 통해 점점 사라져 가고 있는 원시 어로 방식인 돌살 관련 어휘장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주제어: 돌살, 독살, 쑤기, 쑤기땀, 원시 어로 방식

1. 현장 조사와 제보자

원시 어로방식 돌살 관련 어휘 조사는[2]는 전라남도 해남군 송지면 중리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돌살'로 고기를 잡는 곳은 네 군데 정도이다. 제주도는 육지에 비해 많이 남아 있지만 육지부에서는 남해안과 서해안에 두 군데이다. 남해안에서는 경남 남해군의 설천면을 중심으로 한 지역과 전남 해

1) 어휘 외에도 관련 음성자료(구술자료 1, 분절음성 99), 영상자료(사진 8, 동영상 1)를 수집할 수 있었다.

2) 본 연구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의 진행된 국립국어원의 어촌지역 생활어 조사 연구 내용 중 필자가 조사한 생활어휘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밝힌다. 홍기옥(2011) 연구 참조.

남군 송지면 지역을 중심으로 그 흔적이 남아 있으며, 서해안의 비인만과 태안반도 지역을 중심으로 돌살 밀집지역이 형성되어 있다. 이 중 해남군의 돌살은 현재도 어업이 이어진다는 점에서 '살아 있는 돌살[3]'로 그 의미가 있다.

돌살에 관련된 조사는 문헌조사와 현장조사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주강현의 저서를 포함하여 돌살에 관련된 문헌조사를 중심으로 현장에서 조사할 범주와 명칭을 나누어 정리하고, 현장조사 후 부족한 내용은 보충조사를 통해 보완하였다. 조사 범주는 돌살 관련 명칭에서부터 돌살에 관한 전반적인 작업을 범주별로 나누어 진행하였고, 더불어 돌살에 관련된 관용 표현을 조사에 포함하였다.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1〉 조사 내용

범주	어휘 항목
돌살 관련 명칭	전체, 부분, 종사자, 단위 명칭
돌살 만들기	재료, 위치, 행위, 모양
고기 거두기	도구, 시기, 행위, 어획물, 기타
보수하기	상태, 도구, 행위, 원인
고사 지내기	시기, 음식, 장소, 행위
관용 표현	범주별 관용 표현

전라남도 해남군 송지면의 돌살에 관한 조사를 위해서 전라남도 해남군 송지면에서 태어나 거주하고 있으며 어업에 관련된 생계를 하고 있는 토박이를 주제보자로 선정하였다. 돌살에 관한 조사는

3) 주강현(2006)의 저서에는 민속학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의 돌살에 대한 다루고 있으며, 여전히 운용되고 있는 현재의 '돌살'에 '살아 있는 돌살'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4대째 돌살 어업을 하고 있는 해남군 송지면 중리에 거주하는 김동식 씨를 주제보자로 하고 한 마을에서 나고 자란 친구 김남준 씨를 보조 제보자로 하여 조사를 하였다. 외에도 해남군 송지면 어란리 토박이로 평생 어업에 종사한 최천태, 임연태 씨도 함께 조사하였다.

〈표 2〉 제보자

이름	성별	나이[4]	거주지
김동식	남	73	전남 해남군 송지면 중리
김남준	남	73	전남 해남군 송지면 중리
최천태	남	80	전남 해남군 송지면 어란리
임연태	남	86	전남 해남군 송지면 어란리

조사방법은 조사 대상자와 밀착하여 직접 조사하는 민속지적(ethnography) 조사 방법[5]으로 해당 어휘를 심층 밀착 조사하였다. 돌살 관련 어휘 조사를 위해서 사용하는 조사 방법은 질문지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질문지 조사를 원활히 하기 위해 설명하기 어려운 어휘는 사진을 병행하여 조사를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해당 어휘 항목을 조사하고, 나아가 조사 어휘를 심층 밀착 조사하여 해당 어휘의 하위 항목 어휘까지 수집하였다. 또한

4) 조사를 시작한 2011년 나이를 기준으로 정리함.

5) 민속지적 조사 방법은 사람들의 삶을 그들 자신의 시각으로부터, 그리고 그들 자신의 체험의 맥락에서 배우려는 특별한 방법론이다. 민속지적 방법의 공통적인 특징은 장시간 필드워크를 필요로 하는 참여적 관찰이 강조되는 것과 일상연구에 관련된 소규모 단위의 연구에 많이 활용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민속지적 연구 방법은 반복적이고 귀납적인 연구 방법을 사용하며, 조사 현장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과 문화적인 맥락을 직접적이고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그들을 유심히 관찰하고, 경청하며, 질문을 제기하여 발화를 풍부하게 이끌어 내는 것이 특징이다.

비디오카메라와 녹음기 등을 사용하여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수집, 정리하였다.

2. 돌살 관련 어휘 분석

1) 돌살 관련 명칭

돌살과 관련된 명칭 조사에서는 돌살 전체 명칭, 돌살을 구성하는 부분 명칭, 종사자의 명칭, 돌살 단위에 대한 명칭을 조사하였다.

(1) 전체 명칭

① 쑤기, 쑤기땀, 수기, 독살

'돌살(stone-weir)'은 돌로 만든 어살이다. 어살은 『표준국어대사전』에 '물고기를 잡는 장치로 싸리, 참대, 장나무 따위를 개울, 강, 바다 따위에 날개 모양으로 둘러치거나 꽂아 나무 울타리를 친 다음 그 가운데에 그물을 달아 두거나 길발, 깃발, 통발과 같은 장치를 하여 그 안에 고기가 들어가서 잡히도록 한다.'라고 정의되어 있으며, 돌살은 그 중 돌로 만든 어살이라 할 수 있다.

어살은 재료에 따라 종류가 다양하지만 그 중 돌살이 가장 오래된 형태라 할 수 있다. 조수간만의 차가 큰 지역에 돌을 쌓아 썰물이 되면 돌담 안에 들었던 고기가 잡히는 방식이다.

전남 해남군 송지면에서는 '돌살'을 '쑤기, 쑤기땀, 수기, 독살'이라 한다. 이중 많이 사용하는 어휘는 '쑤기'인데 제보자는 '수기'라는 어휘와 병행해 사용하였다. '쑤기땀'은 '쑤기'에 '담'이라는 단어가 붙은 어형으로 쑤기가 돌로 담을 만든 형태이므로 합성어의 형

태로 만들어진 말이다.

'독살'은 제보자의 말에 의하면 쑤기에 비해 뒤에 사용된 말이라 한다. 표준어형 '돌살'에 해당되는 방언 어휘라 볼 수 있으며, '독'은 '돌'의 방언형으로 경기,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지역 등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말이다.[6]

> ✏ 옛날에는 {쑤기땀이라} 그랬어. 쑤기땀. 쑤기라. 쑤기. 쑤기땀이라 그랬는데. 근년에 인자, 돌살이. 돌살이 아니라 {독살} 글코 많이 부르제.

② 동식이네 쑤기땀

쑤기의 이름은 돌살의 주인 이름을 따 부른다. 제보자 김동식 씨의 쑤기땀의 이름은 '동식이네 쑤끼땀'이다.

> ✏ 그라고 인자 내가 항께. {동식이네 쑤기땀}, 그라고.

③ 사시사철 수기, 평사 쑤기, 평상 돌담, 겨울 쑤기

쑤기는 일 년 내내 사용하는 것이 있고, 초가을에서 겨울까지 사용하는 쑤기가 있다. 김동식 씨의 쑤기는 일 년 내내 하는 쑤기로 이런 쑤기를 '사시사철 수기, 평상 쑤기, 평상 돌담'이라 한다. 평상시에 한다고 해서 '평상'이라는 어휘가 붙어 만들어진 합성어임을 알 수 있다. 그에 비해 초가을에서 겨울까지 이용하는 쑤기를 '겨울 쑤기'라고 하는데 정약전의 『자산어보』에서는 '가을걷이'라 제시되어 있었지만 제보자는 쓰지 않는다고 한다.

> ✏ 우리가 한 {수기는} {사시사철 보는 수기고}. 그래서 인자. 가에서 하는 것은 그렇고. 방치해놨다가 여름서는 다 문허뿌불죠. 그럼 다시 또 가을 돌아오면은 사람 불러서 그럼 쏘아가지고 또

6) 한민족 언어정보화 사업의 결과인 〈방언검색기〉 활용.

고기 잡아요.

✏ 아이 없어. 것도 {평사 쑤기래}. {평상 돌담이지요}.

✏ 근데, 인자 옛날에는. 요런 데서. 가에다는 막은 그런 돌담은 가을에. {초가을에 막아서 초겨울까지만} 보고는 그 때 닫아서 방치해져버리고.

(2) 부분 명칭

돌살을 구성하는 부분 명칭은 많이 조사되지 않았다. 남해안의 대나무 발을 세워 만든 어살인 죽방렴은 그 규모가 커 부분 명칭이 많은 것에 비해 쑤기는 규모가 작은 것이라 그 구성도 단순하다고 볼 수 있다.[7] 부분 명칭에서는 임통과 돌담만 조사되었다.

① 임통

'임통'은 쑤기에서 고기가 가두어지는 부분을 말하는데 가로, 세로 50cm, 한 자 정도 되며 높이는 1m 정도 되는 통이라 한다. 대부분 임통은 둥근 원형으로 돌을 쌓아올리며 물이 빠지면 임통에는 10cm 정도의 물이 남아 쪽지로 고기를 떠 올린다고 한다. 임통의 모양이나 기능은 죽방렴의 그것과 동일하였다.

✏ 그라, {임통이} 여기 여가 조그마가 있어요. 가운데 줄, 임통.

② 돌담

쑤기에서 임통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전체를 이르는 말이다. 돌로 담을 쌓아서 임통과 연결시키는데 이 부분은 반달 모양으로 고기가 임통으로 들어가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돌담은

7) 죽방렴은 '발통, 발카지, 사목, 쇠발/ 새발, 발장, 등판, 문, 수망장, 짐돌, 짐목/ 장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홍기옥, 『2010년 민족생활어 조사 4』, 국립국어원, 2010 참조.

이중으로 쌓기도 한다. 또한 '돌담'은 임통을 제외한 쑤기 전체를 지칭하는 명칭이지만 쑤기 전체를 부르는 말로도 사용되었다.

✏ {돌담을} 독살이라 그라제.

(3) 종사자 명칭

쑤기땀에 조사하는 사람의 명칭은 세분화되어 있지 않았다. 쑤기의 규모가 작아 쑤기 주인만으로도 운용이 가능하다고 한다. 주인은 '쑤기땀 임자'라 하였고, 밑에서 일하는 일꾼이나 쑤기를 만드는 기술자를 지칭하는 말도 조사되지 않았다. 이는 경남 남해안의 죽방렴에서 사용하는 종사자 명칭과는 차이를 보이는데 어살 규모의 차이에서 오는 현상이다.[8)]

✏ 그거 말하자면, {쑤기땀 임재} 그라제.
✏ {종업원은} 없었고.

(4) 단위 명칭

쑤기를 세는 단위는 '개'이다. 죽방렴이 '채, 통, 개' 등으로 쓰이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 칫등가에나 그런 데 그래가지고. 한 열, 한 열 한 {개}, 열 {개} 이상 있었을 거야.

이상의 돌살 관련 명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8) 홍기옥, 『2010년 민족생활어 조사 4』, 국립국어원, 2010, p. 79.

〈표 3〉 돌살 관련 명칭 어휘

범주	어휘 항목	
돌살 관련 명칭	전체 명칭	쑤기, 수기, 쑤기땀, 독살, 동식이네 쑤기(이름+ 전체 명칭) 사시사철 쑤기, 평사 쑤기, 평상 돌담, 겨울 쑤기
	부분 명칭	임통, 돌담
	종사자 명칭	쑤기땀 임자(전체 명칭+임자)
	단위 명칭	개

2) 돌살 만들기 관련 어휘

돌살은 조수간만의 차이를 이용하여 만들고 활용한다. 바닷물이 빠졌을 때 돌살을 만들고, 보수하는 행위를 하는데 바닷가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돌을 이용하여 만들다. 예전에는 돌살을 운용하려면 돌을 구할 수 있을 만한 재력이 있어야 했다고 한다.

돌살의 높이는 1-2m 정도이고, 고기가 모이는 임통은 가로, 세로 50cm, 한 자 정도 된다. 물이 빠지면 10cm 정도 물이 임통에 남는다고 한다. 이 지역의 돌살은 대체로 반달 모양으로 만들었다고 한다.

(1) 재료

돌살 만들기의 재료는 '돌'이다. 돌의 전남 방언 어형인 '독'이 많이 사용되고 있고 이는 '돌살'을 '독살'이라 부르는 말에서도 나타난다. 돌살을 만들 때 먼저 큰 돌을 쌓아 돌살의 형태를 만들고 큰 돌이 무너지지 않도록 작을 돌을 큰 돌 사이에 끼워 넣는다. 이때 끼워 넣은 작은 돌을 '작살'이라 하고 이런 행위를 '작살 박다'라 한다.

✏ {돌}을 가져다가 실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흩어진 {돌}을 전부 모구고 해. 모아서 이렇고 가끔 쌓아서 해.
✏ {독} 사이도 빻고 그랑께.
✏ {돌멩이}를 가끔 모아다가 이 땀 쌓듯기 쌓아요.
✏ 큰 것은 요렇게 올려놓으면, 그것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다가 {작살}이라고 또 박어. 안 움직이게끔.

(2) 위치

돌살은 위치에 따라 수확량의 차이가 크므로 좋은 위치에 돌살을 만드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돌살 만들기에 좋은 위치란 주변에 바위와 돌이 많은 곳, 그리고 조수간만의 차를 이용해 고기를 잡는 것이므로 물이 잘 들고 나는 장소가 좋다. 바위와 돌이 많은 지역은 돌살 쌓기에 필요한 재료가 많기도 하고, 이런 지형에 고기가 많이 몰리기도 해서이다.

✏ 제가 하고 있는 것은 그 위치가 좋아요. 위치가 좋아서, 고기가 잘 잡히거든요. {바위도 있고}. 인자 {돌이 주로 마이 있지요}. 그라고 {물빠짐이 좋고}.
✏ 그라고 {민물이 들어오고}.

(3) 행위

돌살을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무엇보다도 무거운 돌로 형태를 잡아야 하기 때문인데 이는 노년층이 하기에 힘든 일이다. 김동식 씨의 돌살도 무너져 보수를 해주어야 하지만 큰 돌을 들어 올려야 하는 일이므로 돌살 만들기, 보수가 힘든 상황이라 한다. 이런 상황은 현재 어촌지역에서 노년층 위주의 원시 어로 방식인 돌살이 급격히 사라져 가는 이유이기도 한다.

① 돌 모우다/ 독 모구다

돌살을 만들기 위해서는 형태를 잡을 돌을 모아야 한다. 주로 주변의 돌을 이용하기도 하지만 큰 돌은 다른 장소에서 가지고 오기도 한다. '모우다' 어형 대신 '모구다'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는 '모으다'의 어중 '-g'의 삽입으로 전남 신안 방언형 중 '모크다'와 유사한 형태라 볼 수 있다.

✏ {돌멩이를 모운거제}.
✏ 돌을 가져다가 실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흩어진 {돌을 전부 모구고 해}. 모아서 이렇고 가끔 쌓아서 해.

② 열 쏘다, 쌓다, 돌 올리다

다음 과정으로 모은 돌을 이용해 담 쌓듯이 돌살의 형태를 만든다. 이처럼 큰 돌을 돌살의 형태로 쌓는 것을 '열 쏘다'라고 표현하며 여기에는 돌을 '쌓다', '올리다'의 과정을 포함한다. 즉, '열 쏘다'는 돌을 쌓아 올리는 작업을 포함하여 나타낸다. 열 쏘는 작업은 한 겹, 혹은 이중으로 쌓는다.

✏ {열 쏜다}고 그러는데, 돌멩이를 모운거제.
✏ 돌멩이를 가끔 모아다가 이 땀 쌓듯기 쌓아요. {쌓아고} 올리제.
✏ 다시 {쏘아야제}. 그 돌을 갖다가. 그랑께 힘들제. 그랑께. 나이 먹은 사람들은 힘 없어서 그 {돌을 못 올리제}.
✏ 작은 돌로 넣고, {가에다가 저것을 이중으로 보통 쌓는데}. 이중으로 요렇게 보통 쌓아요. 그럼 가운데다 놓고, 잔 것을 많이 박제.

③ 작살 놓다/놔부다, 작살 박다

큰 돌로 돌살의 형태를 만들면 돌살이 무너지지 않게 큰 돌의 틈을 작을 돌로 꽉 메운다. 작은 돌을 끼워 넣어 큰 돌의 움직임을 막는 것이다. 이때 끼워 넣는 돌을 '작살'이라 하며 이런 작업을 '작살 박다, 작살 놓다/놔부다'라고 표현한다.

✏ {작살을 먼저 놔불고} 거기다 얹힐 수도 있고. 상당히 어려워요. 힘들어. 돌멩이 한 것이라.
✏ 큰 것은 요렇게 올려놓으면, 그것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다가 {작살이라고 또 박어}. 안 움직이겠끔. 그게 움직여 버리면은, 돌이 모가 난 것이 아이고, 둥근 놈도 있고.

④ 묻다, 닫다

돌살은 일 년 내내 이용하기도 하지만 초가을부터 겨울까지만 이용하기도 한다. 그러면 봄부터 여름까지는 돌살을 사용하지 않는데 이를 경우를 '돌살 묻다, 닫다'라는 동사를 사용하여 표현한다. 『표준국어대사전』의 '묻다' 의미인 '물건을 흙이나 다른 물건 속에 넣어 보이지 않게 쌓아 덮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연어 구조인 '돌살+ 묻다/닫다' 형태는 '돌살을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다.

✏ 예. 다 없고. 하나가 제일 제가 하고 있는 거가 가장 오래요. 근래까지 있었는데. 지금 다 {묻어놔} 버렸어. 그래요. 지금. 딴 데도 흔적 있는 데는 있어요.
✏ 초겨울까지만 보고는 그 때 {닫아서} 방치해져버리고. 그라면, 그 때 고기가 뭣이 있을 거이냐면 동어라고, 송어새끼. 거의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걸 잡을라고, 이 가에서 한 번 데쳐져. 글 수기고.

(4) 모양

돌살은 임통의 모양은 대체로 원형으로 비슷하나 돌담의 모양은 지역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다고 한다. 김동식 씨의 돌살은 물론 이 지역의 돌살은 대체로 반달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고기가 모이는 임통을 뺀 담의 모양이라 할 수 있다. 다른 지역에서는 담을 좀 더 안쪽으로 모아서 말굽 모양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 모양은 반달이제. {반달 모양으로} 대체적으로.

이상으로 돌살 만들기 관련 어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돌살 만들기 관련 어휘

어휘 항목	
재료	돌/ 독/ 돌멩이/ 작살
위치	바위가 있다, 돌이 많다, 물빠짐이 좋다, 민물 들다
행위	열쏘다, 돌담 막다, 담 쌓듯기 쌓다, 돌멩이 모우다/ 독 모구다 → 쏳다/쌓다(가에다 이중으로 쌓다) → 돌 올리다 → 작살 놔부다/ 작살 박다, 묻다/ 닫다
모양	반달 모양, 말굽 모양

3) 고기 거두기 관련 어휘

물때가 돼서 돌살이 바다 위로 보이면 잡힌 고기를 거두기 위해 돌살에 간다. 고기를 거두기에 관한 어휘는 도구, 시기, 행위, 어획물, 기타로 범주를 나누어 정리하였다.

(1) 도구

① 뜰개/ 뜰채/ 쪽바지

돌살에 고기를 거두러 가면 뜰채를 이용해 고기를 잡는다. '뜰채'는 물고기 따위를 건져 올릴 때 쓰는 도구로, 오구 모양의 그물이 달려 있는 도구이다. 이 도구를 이용해 임통에 걸린 고기를 한쪽으로 몰아 고기를 퍼내는 것이다. 송지면에서는 '뜰채'와 '뜰개, 쪽바지'라는 어휘가 함께 사용되고 있다.

✏ {뜰개}, {쪽바지}. 쪽바지라고 있어요.
✏ {뜰채}.

② 망/ 망태/ 바구니

뜰개로 잡은 고기는 '망태나 망, 바구니'에 담아 운반한다. 예전에는 짚으로 만든 망태를 이용하여 고기를 어깨에 메어 운반했다면 요즘은 수확량이 작아 바구니에 담는다고 한다.

✏ {망}, {망태개} 있어.
✏ 그렇고, 옛날같이 많이 안 잡히니까. 옛날에는 {바구니에} 들고 올리면은 마이 잡히면 무거워서 못 들고 오니까. {망태라고} 짚으로 엮은 것이 있어.

(2) 시기

돌살이 보이면 고기를 잡으러 가는 것이므로 바다에 물이 빠지거나 고기가 활동을 많이 하는 시기에 어획 작업을 한다.

① 사리빨, 조금빨

바다에 물이 빠지는 시기에는 언제든 고기를 잡으러 간다. 조수 간만의 차가 가장 많이 나는 '사리'나 조수 간만의 차가 적은 '조금' 때든 물이 빠지면 작업이 가능하다. 지역에서는 '사리빨, 조금빨'이라 물때 명칭을 사용하였다.

✏ 인자 저 물 마이 나고. {사리빨}. 저 사리빨. 뭐시라해서 중간이 살새라.
✏ 보통 인자 물이 {조금빨에도} 물이 더 날 때가 있어. 더 빠질 때가. 일단 물만 빠지면 잡으러 가고 물 안 빠지면 못 잡고 그래요.

② 물이 특할 때, 밤

바닷물이 흐리거나 캄캄한 밤에는 고기들이 돌살이 보이지 않아 돌살에 많이 들어오므로 고기가 돌살에 많이 갇힌다고 한다. 바닷물에 구정물이 일어나 물이 흐린 경우를 '물이 특하다'라는 독특한 표현을 사용하는데 '물이 맑다'의 반의어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낮보다 밤에 고기 잡기가 좋다고 한다.

✏ 그러니까 {밤}에 많이 잡히제. 낮에는 안 잡혀요.
✏ 특할 때. 말하자면. 고기가 인자, {물이 특하면은}. 돌이 안 보이니까. 돌담 쌓아논 거이 안 보이니까. 마이 잡히제. 그란디 물이 맑으면은 하나도 안 잡히제.

③ 마파람 불 때, 날이 푹할 때

바람은 어촌생활에서 중요한 기상 현상 중 하나이다. 바람을 보고, 바람에 따라 어로 활동을 하기 때문이다. 따뜻한 남풍이 불면 고기들이 많이 활동을 하는 시기이므로 남풍인 '마파람'이 불면 고기를 잡기에 좋다. 그래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남풍인 마파람을 좋은 바람으로, 차가운 북풍을 도움이 되지 않는 바람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날씨가 덥고 습기가 많은 날씨에 마파람이 불면 바다에 구정물이 많이 생겨 흐린데, 이때도 고기가 많이 잡힌다. 날씨가 덥고 습기가 많은 날씨를 '날이 푹하다[9]'라고 표현하였다. 따라서 날이 푹하고, 마파람이 불면 고기가 많이 잡힌다고 한다.

✏ {날씨가 푹하니}. 바람도 별로 없고. 이 {마파람이}, {남풍이 불 때}.

9) 『표준국어대사전』에 수록된 표제어 '푹하다'는 '겨울 날씨가 퍽 따뜻하다.'라는 의미로 정의되고 있으나 조사에서 수집된 '날이 푹하다'는 여름에 날씨가 덥고, 습한 날을 이르는 말이다. 그러므로 『표준국어대사전』에 수록된 의미와는 차이가 있다.

(3) 행위

① 쑤기 보다

고기를 잡으러 돌살에 가는 행위를 '쑤기 보다'라고 한다. 돌살을 지역에서는 '쑤기'라 하는데 '쑤기 보다'는 돌살을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돌살에 가서 고기를 거두는 행위까지 포함하는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죽방렴에 관한 어휘 조사에서도 나타났는데 죽방렴에 고기를 거두러 가는 것도 '발 보다, 발 보러 간다'라고 '보다'와 연어 형식으로 사용하였다.[10]

✏ 그런 것은 없어도 {쑤기 보러} 안 가도. 어떻게 잡아버리고 없어.

② 잡다, 뜨다, 져 올리다

쑤기에 가면 뜰채로 고기를 떠 올려 망태나 바구니에 담는다. 다른 어살에 비해 쑤기는 규모가 작아 혼자서도 작업이 가능하다고 한다.

✏ 글치, 물이 빠지면 {잡으러} 가제. 물이 다 되제. 빠져부리면 고기가 인자 물기 없는 데가 째작째작한 데가 있응께, 뜰채로 {뜨제}.
✏ 농어가 맬을 많이 먹기 때문에. 거의 쫓겨서. 그 때는 동네사람들도 막 가서 뜨고. 짐으로 {져 올리고} 그럴 때도 있었고.

③ 들춰 메다, 팔다

망태에 담은 고기는 어깨에 메고 집으로 운반한다. 어획물의 대부분은 집에서 먹지만 양이 많거나 귀한 고기가 잡히면 오일장에 내다 팔기도 한다.

---

10) 홍기옥, 『2010년 민족생활어 조사 4』, 국립국어원, 2010, p. 107.

✏ 그렇고, 옛날같이 많이 안 잡히니까. 옛날에는 바구니에 들고 올라면은 마이 잡히면 무거워서 못 들고 오니까. 망태라고 짚으로 엮은 것이 있어. 거 엮어가지고 여 어깨 죽지에 {들쳐 메고} 오제.
✏ 아니 장에 촌 오일장에 갖다 많이 {팔아}.

(4) 어획물

① 숭어, 동어/ 동에

쑤기에 잡히는 고기는 근방에서 잡히는 고기 대부분이라 할 수 있다. 가장 많이 잡히는 고기는 '숭어'이고 숭어 새끼를 '동어, 동에'라 한다. '동에'처럼 전남 어촌 지역에서는 물고기 이름에 '-에'를 붙여 부르는 경우가 많다.

✏ 제일 많이 잡힌 것이 {숭어}. 그 때만 해도 숭어 오염 안 되고 그랬기 때문에, 숭어를 고기로 상당히 알아줬죠.
✏ 숭어새끼를 뭐라고 그러나요? {동에}. {동어}.

② 멜, 이루꾸, 농어, 껄떡이

'멜'은 멸치의 전남 방언형 중 하나로 보통 크기의 멸치를 부르는 말이다. 새끼 멸치, 작은 멸치를 부르는 말에는 '이루꾸'라는 일본어를 사용하였다. 멸치 떼를 따라 다니는 고기가 있는데 '농어'이다. 농어 새끼를 '껄떡이'라 하였다.

✏ 때를 {멜떼도} 들어와 가지고, {멜떼가} 들어오면은 {농어가} 꼭 따라다녀요.
✏ {농어새끼}를 부르는 말이 있나요? {껄떡이}.
✏ 작은 것보고, 멸치 새끼 적은 것보고 {이루꾸}라 그래.

③ 전어, 대미

전어도 지역에서 많이 잡히는 고기 중 하나이다. 제보자들은 새

끼 전어를 '대미'라 하였는데, '대미'는 실제로는 다른 종류의 물고기라 한다. 생긴 모습이 둘이 아주 닮아서 그렇게 부른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서 '대미 천 개라도 전어 하나만 못하다'라는 관용 표현이 있는데 이는 전어 맛이 월등이 좋아서 나온 표현이라 한다.

✏ 지금 {전어}보다 적은 거를 {대미라고} 하는데. 거의 종류가 틀려요. 고기가 틀려요.

④ 기타

기타 잡히는 어종에는 '연어, 광어, 뽈락, 우럭' 등 다양한 어종이 있다.

✏ {연어}도 잡히고 {광어도} 잡히고.
✏ 또 {뽈락}, {우럭}.

(5) 기타

① 물이 다 되다, 물이 빠지다, 물이 째작째작하다

물이 바다로 나가는 것을 썰물이라 하는데 썰물 때가 되면 돌살은 모습을 드러낸다. 썰물 때 물이 빠지는 것을 '물이 다 되다, 물이 빠지다'로 표현하며 물이 빠지면 쑤기의 임통에 물이 빠지고 10cm 정도로 조금 남게 되는데 이런 상태를 '물이 째작째작하다'고 표현한다. 물이 임통에 조금 남아 있을 때 임통에 갇힌 물고기를 건져낸다.

✏ 글치, 물이 빠지면 잡으러 가제. {물이 다 되제}.
✏ {물기 없는 데가 째작째작한} 데가 있응께, 뜰채로 뜨제.

② 독살 떨어지다, 돌땀 보이다

썰물이 되어 바닷물이 빠지면 쑤기가 보이는데 물이 빠져 돌살이 보이는 상태를 '독살 떨어지다, 돌땀 보이다'라고 표현한다. '독살 떨어지다'는 '독살의 높이가 물 높이와 맞아 떨어진다'는 말에서 나온 표현이라고 한다. 바닷물이 빠져서 돌땀이 보이면 임통에 갖힌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것이다.

✏ 물이 빠지면은 {독살을 떨어진다는} 말을 써. 독살 밑으로 물이 빠진다고.
✏ 여 자리 뜨러 갈려지면은 돌땀이 보이거든요. {돌땀 보인다} 그런 말 하제.

이상의 고기 거두기에 관련된 어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5〉 고기 거두기 관련 어휘

어휘 항목		
도구	뜰개/ 뜰채/ 쪽바지, 망/ 망태기/ 바구니/ 짚	
시기	사리때, 조금빨(물이 더 날 때), 밤, 물이 특할 때, 마파람 불 때, 날씨가 푹할 때	
행위	쑤기 보다, 뜨다, 저 올리다, 들췌메다, 팔다	
어획물	大	小
	송어	동어, 동에
	멜	이루꾸
	농어	껄떡이
	전어	대미
	연어, 뽈락, 우럭 등	
기타	물이 다 되다, 물이 빠지다, 물이 째작째작하다, 독살 떨어지다, 돌땀 보이다	

4) 보수하기 관련 어휘

쑤기는 일정 정도 시간이 지나면 보수를 하여야 한다. 무너진 부분을 다시 쌓아 올리거나 잔돌을 큰 돌 사이에 박아 넣는데 보수하기에 관련된 어휘는 돌살의 상태, 보수 도구, 행위, 원인과 관련된 기타 항목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1) 상태

쑤기는 태풍이 지나가거나 파도가 심하게 치면 무너지는데 이럴 때는 보수를 하여야 한다. 요즘의 쑤기는 사람들이 게를 잡으려고 돌살에 손을 대는 바람에 많이 무너진다고 한다. 보수가 필요한 독살의 상태를 '헐어지다, 문허나다'라고 표현한다.

- ✏ 그냥 평상 복원하지요. {헐어지면}. 것도 인자 물이 들어오면 못하고. 물이 빠졌을 때 하제.
- ✏ 사람이 손누베 안 하고, 파도가 안 치면은 그대로 있는데, 사람이 그냥 고동 잡은다고 건들어버리고, 파도치면 {헐어졌뿌제. 문허나뿌제}.
- ✏ {문허나면}, 다시 보수를 해야제.

(2) 도구

돌살을 보수할 때 쓰는 도구는 돌살을 만들 때 쓰는 도구와 같다. 바다에 돌을 쌓아 올리는 작업이므로 장갑을 끼고 하는데 요즘은 장갑을 끼고 하지만 제보자 김동식 씨의 아버지 때는 장갑이 흔하지 않은 시기라 버선을 뒤집어 손에 끼고 작업을 하였다고 한다. 또한 작은 돌을 박는 작살 작업을 할 때는 호미로 돌을 깨서 끼운다고 한다.

✏ {삼베로, 베로 만든 버신}이라고. 거 떨어진 것. 그 떨어진 거를 거꿀로 끼 가지고. 많이 썼지.
✏ {호미로} 인자 일게 가지고. 지금은 {장갑}이 나왔으니까. 우리덜은 버신을 안 써봤지. 그란디. 우리 아버지 때는 전부 버신을 썼어. 그 때는 {장갑}이 없으니까.

(3) 행위

돌살을 보수할 때는 돌살을 만드는 것과 과정이 같다. 무너진 곳에 돌을 다시 쌓아 올리고 작을 돌을 큰 돌 사이에 박아 넣는다.

✏ 그냥 평상 {복원하지요}. 헐어지면. 것도 인자 물이 들어오지는 못하고. 물이 빠졌을 때 하제.
✏ 문허나면, 다시 {보수를 해야제}.
✏ 삼베로. 베로 만든 {버신이라고. 거 떨어진 것. 그 떨어진 거를 거꿀로 끼 가지고}. 많이 썼지.
✏ {다시 쏘아야제}. 그 돌을 갖다가. 그랑께 힘들제. 그랑께. 나이 먹은 사람들은 힘 없어서 그 {돌을 못 올리제}.

(4) 기타

① 손누베 하다, 파도치다

돌살이 무너지는 원인에는 파도가 치거나 태풍, 바람이 부는 등과 같은 자연적인 원인이 크지만 요즘은 사람의 영향도 많다고 한다. 사람들이 고동이나 게를 잡는다고 돌살에 손을 대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사람들이 돌살에 손을 대는 것을 '손누베 하다'라고 표현한다.

✏ 사람이 {손누베 안 하고}, {파도가 안 치면은} 그대로 있는데, 사람이 그냥 고동잡은다고 건들어버리고, 파도치면 헐어졌부제. 문허나뿌제.

이상의 보수하기에 관련된 어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6〉 보수하기 관련 어휘

어휘 항목	
상태	헐어지다, 문허나다
도구	삼베로 만든 버신, 장갑, 호미
행위	복원하다, 보수하다, 버신 꺼꿀로 끼다, 독 올리다, 돌 박다
원인	손누베 하다, 파도치다

5) 고사 지내기 관련 어휘

돌살은 그 규모가 크지 않아 고사를 크게 지내지는 않는다고 한다. 다만 사리 때 첫물에서 잡은 고기를 집안에 걸어두고 그 밑에서 용왕님께 빌었다고 한다. 이때 걸어놓는 고기를 '지숙'이라 하였고 그런 행위를 '지숙 달다'라고 하는데 주로 집안의 여자들이 많이 했다.

(1) 시기

돌살에 사고 없이 고기가 많이 들게 해달라고 기원하는 고사는 사리 때 고기를 잡아와 지낸다. 돌살은 그 규모가 작아 고사도 큰 규모로 지내는 것이 아니라 간단한 의식만 치른다고 한다.

✏ 우야튼 어느 때든지 {사리 때} 첫물. 물이 나가지고, 첫물에 잡은 놈만 그렇고 고사를 지내. 지숙을 달아요.

⑵ 음식

① 지숙

고사를 지낼 때 차리는 음식도 다른 지역의 고사에 비해 많지 않다. 종류가 어떠하든 첫물에 잡은 고기를 고사 음식으로 사용하는데 첫물에 잡은 고기를 '지숙'이라 한다.

✏ 첫물 때 고기를 잡아갖고 오면은 {지숙이라고} 집에다 달아놔요.
✏ 우야튼 어느 때든지 사리 때 첫물. 물이 나가지고, 첫물에 잡은 놈만 그렇고 고사를 지내. {지숙을} 달아요.

⑶ 장소

고사를 지내는 장소는 주로 집이다. 고사라 하지만 아주 간단한 의식으로 집에 첫물에 잡아온 고기를 걸어두는 것이므로 다른 장소에서는 이뤄지지 않는다고 한다. 집안의 어디든 상관이 없으며 마루 끝에도 달아두기도 한다. 이는 남해안 삼동면의 죽방렴에 관련된 고사는 죽방렴, 발막, 바닷가, 집 등 다양한 장소에서 이뤄지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 달아 놓고. {집에} 인자 {마루나} 그런 데서 달아.

⑷ 행위

① 지숙 달다

쑤기에 관한 고사는 간단하다. 집안에 사리 때 첫물에 잡아온 물고기를 다는 것이다. 이런 행위를 '지숙 달다'라고 하는데 지숙을 다는 것만으로도 고사라고 할 수 있다고 한다. 지숙을 다는 것은 집안의 누구나 상관은 없지만 여자들이 주로 하였다고 한다.

✏ 고사는 없고, 지숙이라고. {지숙 단다}고 그래요.
✏ 그런 것도 없고. 아이, 그런디 보면은 {지숙 거 달아 놓고}, 고기 밑에서 일종의 비는 것도 봤어요. 잘 잡혀주라고. 그런 것도 봤는데.

② 손 비비다

지숙을 다는 것으로 고사의 행위가 끝날 수도 있지만 고기를 달고 비는 행위도 함께 하는 경우도 있다. 일종의 기원 의식을 한다고 볼 수 있다.

✏ 아이, 이렇고 하면서 {손 비비면서} 빌지.

이상의 고사 지내기 관련 어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7〉 고사 지내기 관련 어휘

어휘 항목	
시기	사리 때, 첫물이 날 때
음식	지숙, 첫물에 잡은 놈
장소	집안, 마루
행위	지숙 달다, 지숙 달아 놓고 고기 밑에서 빌다, 손 비비다

6) 관용 표현

돌살에 관련된 관용 표현은 다음과 같은 표현이 조사되었다.

(1) 좋은 독살은 무논 서마지기 하고도 안 바꾼다

김동식 씨의 돌살은 고기가 많이 잡히는 위치가 좋은 돌살인데

이런 돌살은 '무논 서마지기 하고도 바꾸지 않았다'고 한다. 위치가 좋은 돌살에는 고기가 많이 들기 때문에 논농사를 할 수 있는 무논과도 바꾸지 않을 만큼 값어치가 있다는 말이다.

⑵ 해달이 들면 고기 못 잡는다

돌살에 해달이 들어오면 임통에 있는 고기를 다 잡아 먹고, 돌살의 위치를 알고 또 찾아와 고기를 다 잡아 먹기 때문에 해달이 가 든 돌살은 피해를 많이 보았다고 한다.

✏ 그랬죠. 옛날에 저 우리가 하는 것은. {무논 서마지기하고도 안 바꾼다고} 그랬어, 독살이.
✏ 해달이가 임통에. 임통이 좁으니까, 임통에 들어가서 게 같은 거 고기 같은 걸 잡아요. 해달이 것이 게를 독게. 거를 잡아 먹는단 말이여. 거 인자, 겨울인데. 것이 한 번 와버리면 {고기를 못 잡어}. 다 잡아먹으니까.

이상의 돌살에 관련된 관용 표현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8〉 관용 표현

어휘 항목
좋은 독살은 무논 서마지기 하고도 안 바꾼다
해달이 들면 고기 못 잡는다

3. 결론

이상으로 원시 어로방식인 '돌살'에 관련된 어휘를 '돌살 관련 명칭, 돌살 만들기, 고기 거두기, 보수하기, 고사 지내기 관련 어

휘, 관용 표현' 등으로 범주를 나누어 조사, 정리하였다. 조사 지역은 현재에도 돌살을 이용한 어업이 진행되고 있는 전라남도 해남군 송지면으로 설정하였고, 지역 토박이로 4대째 돌살을 이용한 어로를 하고 있는 김동식 씨를 주제보자로 하였다. 조사를 통해 아래와 같이 관련 어휘, 음성자료, 영상자료를 수집하였다.

〈표 9〉 수집 자료

조사어휘		음성자료		영상자료	
총 어휘 수	미등재 어휘	구술/전사	분절 음성	사진	동영상
99	59	1/1	99	8	1

조사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해남군 송지면에서는 일반적으로 돌살을 '쑤기, 쑤기땀'이라 불렀으며 쑤기는 일 년 내내 운용하는 것과 초가을에서 초겨울까지 하다가 이용하지 않는 쑤기도 있다. 이용하지 않는 쑤기는 '쑤기 묻다, 닫다'라고 표현한다. 쑤기의 부분 명칭은 고기가 모이는 '임통'만 죽방렴과 공통 용어로 추출되었다.

2) 돌살의 재료는 말 그대로 돌이다. 우선 큰 돌을 쌓아 형태를 만들고, 그 큰 돌 사이에 작은 돌을 끼운다. 이때 끼우는 작은 돌을 '작살'이라 하고 이런 행위를 '작살 박다'라고 한다. 큰 돌로 돌살의 모양을 만드는 것을 '열 쏘다'라고 표현하는데 돌살의 높이는 1-2m 정도이고, 고기가 모이는 임통은 가로, 세로 50cm, 한 자 정도 된다. 이 지역의 돌살은 대체로 반달 모양으로 만들었다고 한다.

3) 사리 때가 돼서 돌살이 드러나면 고기를 잡으러 가는데 이런 행위를 '쑤기 보다'라고 말한다. 고기가 많이 잡히는 때는 바람이 없거나 따뜻한 마파람이 불어 날이 더울 때인데 이런 날씨를 '날이 푹허다'라고 한다. 또한 바다에 구정물이 일어 물이 흐리면 '물

이 특하다'라고 표현하는데 이럴 때에도 고기가 앞이 잘 보이지 않아 쑤기에 많이 들어온다고 한다. 고기는 '뜰개, 뜰채, 쪽바지'로 떠 '망태기'에 담아 나른다.

4) 쑤기는 태풍이 지나가거나 파도가 심하게 치면 무너지는데 이럴 때는 보수를 해야 한다. 예전에는 도구가 적당치 않아 삼베로 만든 버선을 거꾸로 뒤집어 손에 끼고, 호미를 가지고 보수를 하였다. 요즘의 쑤기는 사람들이 게를 잡으려고 돌살에 손을 대는 바람에 많이 무너진다고 한다. 보수가 필요한 독살의 상태를 '헐어지다, 문허나다'라고 표현한다.

5) 돌살은 그 규모가 크지 않아 고사를 크게 지내지는 않는다고 한다. 다만 사리 때 첫물에서 잡은 고기를 집안에 걸어두고 그 밑에서 용왕님께 빌었다고 한다. 이때 걸어놓는 고기를 '지숙'이라 하였고 그런 행위를 '지숙 달다'라고 하는데 주로 집안의 여자들이 많이 했다.

6) 고기가 많이 잡히는 좋은 돌살은 무논 서마지기 하고도 바꾸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돌살에 해달이가 들어오면 고기를 다 잡아 먹고, 돌살을 나가지도 않아서 해달이가 든 돌살은 피해를 많이 보았다고 한다.

본 조사가 전라남도 해남군 송지면 지역에 한정된 조사로 돌살 어업이 행해지는 타 지역과의 어휘 비교를 하지 못 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지만,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한 원시 어로방식인 '돌살' 관련 어휘를 연구하는 일은 우리말의 외연을 넓히고, 어로방식과 관련된 어휘장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에 도움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홍기옥,『2011년도 민족생활어 조사 4』, 국립국어원, 2011.
홍기옥 외,『2011년도 민족생활어 조사 5』, 국립국어원, 2011.

2. 논문

이기욱,「한국의 도서문화 -서남해 도서를 중심으로」, 목포대학 도서문화연구소,『도서문화』11집, 1993, pp. 375-416.
홍기옥,「경남 남해군 어촌지역 생활어휘 연구」, 한민족어문학회,『한민족어문학』58호, 2011, pp. 273-299.
홍기옥,「남해안 어촌지역 어획물 명칭 연구」, 한국방언학회,『방언학』16호, 2012, pp. 327-350.
홍기옥,「바다 생물어 명명 기반 연구」, 한국어문학회,『어문학』122호, 2013, pp. 321-344.
홍기옥,「조개류 생물어의 어휘 분화 양상 연구」,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인문연구』69호, 2013, pp. 179-204.

3. 단행본

국립민속박물관,『경남 어촌민속지』, 필기획, 2002.
국립민속박물관,『어촌민속지』, 필기획, 1996.
국립수산기술훈련소,『정치망어업』, 1984.
나승만 외 7인,『다도해 사람들』, 경인문화사, 2003.
데이비드 크리스털, 권루시안 역,『언어의 죽음』, 이론과 실천, 2005.
박계홍,『한국민속학개론』, 형설출판사, 1983.
앤드루 달비, 오영나 역,『언어의 종말』, 작가정신, 2008.
이근우 외 4명,『한국 수산지』, 서울: 새미, 2010.
이병기 · 박승원 · 김진건,『연근해어업개론』, 태화출판사, 1989.
이태원,『현산어보를 찾아서』, 서울: 청어람 미디어, 2002.
장정룡,『속초시 어로민속지』, 속초문화원, 1997.
주강현,『관해기 1-3』, 서울: 웅진지식하우스, 2006.

주강현, 『돌살』, 들녘, 2006.
최덕원, 『남도의 민속문화』, 밀알, 1994.
한국해양수산부, 『한국의 해양문화 1-5』, 서울: 해양수산부, 2002.
홍기옥, 『2010년도 민족생활어 조사 4』, 국립국어원, 2010.
홍기옥 외, 『2010년도 민족생활어 조사 5』, 국립국어원, 2010.
홍기옥 외, 『2012년도 민족생활어 조사 5』, 국립국어원, 2012.

(**투고일**: 2015. 11.15 **심사완료일**: 2015. 12.9 **게재확정일**: 2015. 12.11)

홍기옥
소속: 경북대학교 국어문학과
주소: 41414 대구시 북구 동변동 선수촌아파트 109동 1006호
전자우편: hongok@knu.ac.kr

[Abstract]

Native Fishing Method 'Dolsal' Vocabulary Study

Hong, Gi-Ok

This study summarized the vocabulary related to the country south coast, the west coast of the way done Dunn native language 'dolsal' by the difference in tides through field research, aims to analyze. "Dolsal" and vocabulary related to the codification and related materials to build a base, takes the meaning of basic operations. Vocabulary research is focusing on South Jeolla Province Haenam songjimyeon area is currently being done by the dolsal fishing, and holds dolsal and proceed to select the informer that four generations of the relevant language.

In the region through research, ssugi sweat, ssugi whole called dolsal by-section, workers, unit name, dolsal make a name related to the maintenance, the name associated with reap meat, the name associated with the test, idiomatic expressions related to dolsal collect, organize, organize dolsal was related vocabulary.

It was also "standard language Dictionary" During the investigation vocabulary and 〈Korean language information dialect Appliance〉 is not included morphological, had also not been excavated morphological in dolsal research widen the dolsal vocabulary chapter primitive fishing methods that are disappearing more and more from it If the instrument can be.

Key words: Dolsal, Doksal, ssugi, ssugi Dame, native fishing methods